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27. 스페인 관광버스

기차 가운데서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버스를 타기 위해 플라타 데 시베레스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출근조처럼 마차 한 바퀴가 뒀을 때와는 똑 같은 마드리드와 접 경계 속에 한 5분쯤 기다리자 우리가 타야 할 CO3 버스가 도착했다. 출근 시간에 조금 지나서인데 버스는 그날처럼 북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편하게 좌석에 앉아 갈 수 있었다.

우리가 탄 버스는 플라타 데 시베레스에서 출발할 그때 바야를 따라 직선으로 쫓 간다. 그럼 바야는 마드리드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로 '스페인 브로드웨이' 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플라타 데 시베레스에서 시작해 1.3킬로미터를 계속 가면 플라타 데 에스파냐에서 끝나는데 넓은 저지에는 20세기 초 라미야 건축 스타일이 멋진 빌딩들이 가득하다. 과거에는 호텔과 극장들이 많이 있어 있던 거리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상가들이 대폭 진출해 현재의 유럽 소문 거리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드리드에 왔으니 그림 바야 거리를 따라 꼭 알아가 보는 것도 일종의 볼거림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 보는 것이 내심 싫어졌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지나가면 그림 바야 거리 모습을 잘 살펴 보았다. 마드리드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라고 하는데 야경이 그려진 그림 활기찬 모습으로 보였는데는 달랐고 어딘지 모르게 약간 낯선 분위기가 느껴졌다. 오히려 여러가지 다양한 건축 스타일의 빌딩들이 인상 깊었다. 빌딩들은 고고하고 단정했으며 역시 마드리드 특유의 근엄하면서도 화려하고 웅장함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우리는 플라타 데 에스파냐 정류장에서 내렸다.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보이는 관광회사 주소는 Calle de Fernan 3, 29008 Madrid. 빌딩길 코너에 있는 구조된 상가의 일층이었다. "VPT" 더 멀리라는 관광회사인데 사무실은 텅텅 비었고

남자 직원만 한 명 남아있었다. 오는 10시 30분 출발 플레도 일인 관광 예약했다고 말하자 관광 버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한다.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 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지만 우리는 알현의 기다렸다. 그러나 10시 30분이 되었음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우리는 또 한 번 직원에게 물었다. 김은 여러카카에 작은 키의 청년 직원은 그제서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스 표 두 장을 우리에게 가서 플라타 데 에스파냐에 버스가 와 있으니 그리로 가서 타라고 말한다. 아, 버스가 왔으면 왜고 말해 주어야! 우리는 속으로 두말 거머잡지 표를 받아 왔고 다시 플라타 데 에스파냐로 걸어 갔다.

플라타 데 에스파냐는 공사가 진행 중인지 때문도 다마 놓였는데 그 막에는 또 버스가 가득하다. 그날씩 당혹감 끝에 관광 관광버스가 와 있었다. 출근도 하고 방갈라도 하고 일론 버스에 올라 탔는데 어디서 왔는지 이미 사람들이 꽤 많이 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관광회사 사무실로 가지 않고 아무도 아무도 보지 못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버스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관광버스는 관광하긴 했지만 그리 혁신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어딘지 모르게 시골 고속버스 같은 느낌이 솔솔 날았다. 계속 버스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들조차 어딘지 모르게 시골 사람들 같이 순박하고 어리석어한 분위기에서 나는 속으로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차량 구멍' 에 꼭 빠져들었다. R은 일마를 따라 관광버스를 타는 했지만 관광버스는 나이 든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별로 신나는 기색은 아니었다.

거리 버스 좌석이 다 찼을 무렵, 색이 바랜 건물마래에 금테 안경을 쓴 할머니 가이드가 나타났다. 그녀는 공식포장 스페인어로 외국어공통 관광객들을 단번에 조용히 시킨 다음 버스 안을 한 바퀴 휘 둘러 보더니 중간에 끼어 앉은 R과 나를 발견하고 '일글리슈' 라고 물었다. 우리가 '예스' 라고 하니 '오케이' 한다. 그러자 우리 옆에 앉은 데어 본 명의 청년 여자씨 아줌마 일행이 갑자기 '이탈리아' 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할머니 가이드는 '바 베네(Va Bene)' 라고 호기롭게 외쳤다. 곧 버스가 북북쪽 시동을 걸면서 천천히 출발한다. 버스에 가득 탄 국내 관광객들을 데리고 할머니가 이끄는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등 3개 국어를 번갈아가 사용하며 플레도 1일 관광 안내를 시작한다.

메디케어 agn 처방약보험

조건: 본인이나 원하시는 차과인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료 다 커버되는 우대보험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보험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한 분
- * Medicare and Medicaid (메디케어)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물건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FO)
- * 외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을 필요하신 혜택을 최대한 다해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의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License No. 9907129
SKim858@yahoo.com

용접 및 하우스 리모델링
모든 것 해결해 드립니다

철대문 제작/설치 및 펜스 설치
녹색이 떨어지거나 망가진 곳
플러링, 페인팅, 타일, 에어컨
LED Light, Slifpence
하우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Metal Door, 콘크리트, 방범창살, 핸드레일

SK 핸디맨 펜스/플러링/리모델링
909.969.3669

EquitySource

직판매 PROGRAM



저희가 부동산 커미션 없이 10일 안에 집을 사드립니다

- 24시간 안에 현찰 구입 가격을 받으시고, 클로징 날짜를 자유롭게 정하세요. (50주 가능)
NO showings, NO open house, NO repairs
- 판매후 1년까지 시세 가격으로 렌트 가능
Sell & Stay: Lease back up to 1 year after sale
- Option: HOMECASH™: 이사를 하세요? 최선의 매물을 찾으려고요, 저희의 자금으로 (All Cash Offer) 확보하세요
Buy before you sell!

리스팅 PROGRAM



저희와 리스팅을 하시면 시세 최고의 가격과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십니다.

- \$100,000 까지 0% 이자 융자 제공
(새집 down payment, 집수리 renovation, 이사 비용, 등)
- MLS 리스팅 이후 판매가격 최대를 못받으시면 저희가 구입하는 Guarantee Program
Includes: 전문 드론 사진촬영, 3D virtual tour, SNS 광고
- Option: HOMECASH™: 이사를 하세요? Listing 중이시 이사회집 집을 저희의 자금으로 먼저 (All Cash Offer) 확보하세요
Buy before you sell!

DIRECT 949-245-2662

S. California Office: 7035 Orangethorpe Ave Ste E, Buena Park, CA 90621
Las Vegas Office: 5940 S. Rainbow Blvd., Las Vegas, NV 89118